

# 명코스, 금강센테리움CC 퍼블릭 전환, 일반골퍼도 예약 가능



센테리움컨트리클럽  
CENTERIUM C.C.

그동안 회원제 명문골프장으로 운영되던 금강센테리움CC(27홀)가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해 화제다.

금강센테리움CC는 6년동안 회원제로 운영해오던 골프장 코스를 지난 10월 15일부터 퍼블릭(대중체) 골프장으로 운영 중이다. 500명의 회원에게 1900억원의 입회금을 모두 돌려줘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등 금강센테리움 코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곳 골프장은 세계 100대 코스 설계가인 로버트 헌트가 설계한 국내 유일의 골프장이다.

금강센테리움 측은 "영국풍의 골프장을 그대로 옮겨 달라"고 주문했고 헌트 역시 스코틀랜드 식 벙커를 재현시켜 골프장을 설계했다. 헌트 역시 설계 변경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약속과 함께 6년 전 개장하기에 이르렀다.

개장과 함께 금강센테리움 골프장은 국내 골퍼들에게 '독특한 코스 디자인'과 '항아리 벙커' 등이 회자되면서 꼭 한번 다녀오고 싶은 골프장으로 높이 평가 받았다.

그동안 철저한 회원제 운영으로 가보고 싶었던 골퍼들이 많았지만 쉽게 가볼 수 없었던 곳이다. 그러던 차에 올해 들어 골프사이트 엑스골프(XGolf) 회원에 한해, 잔여 예약을 허용해 순식간에 전국 골프장 예약을 1위에 올랐다.

엑스골프 측 역시 "금강센테리움CC가 회원들로부터 1위 예약을 보일만큼 인기가 있을 줄 몰랐다"는 평가와 함께 "올 한해 엑스골프 회원들이 예약을 가장 많이 한 골프장 1위"라고 설명했다.

마침 금강센테리움CC도 매출에 45% 나 하는 세금과 반환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회원제 운영에 강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다행히 일반 골퍼들의 금강센테리움CC에 대한 관심과의 반응이 뜨거워 자신감을 얻어 과감하게 퍼블릭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 ▲ 명품 퍼블릭 전환기념

12월 31일까지 고객 체험행사 실시  
금강센테리움CC는 퍼블릭 전환을 기념해 오는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고객 체험행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가보고 싶어도 명문 회원제 운영으로 인해 다녀오지 못한 골퍼들을 위해 특별히 다녀올 수 있는 고객 체험 라운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영국의 스코틀랜드 풍 브리티시(British) 골프장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어 라운드가 더욱 색다른 드라마다.

12월 말까지 그린피와 카트료를 포함해 주중 7만 원, 주말 9만 원의 파격적인 요금으로 다녀올 수 있다. 단 센테리움CC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해야 예약과 이벤트 가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2일 연속 라운드 시에는 통계 사용 가능한 무료 라운드 쿠폰이 증정된다. 아울러 라운드 당일 눈이 내릴 경우에도 추후 사용 가능한 무료 라운드 권을 증정하는 SNOW CHECK 제도까지 실시한다.

금강센테리움CC 김정관 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들의 호응이 좋으면 2014년 2월 말까지 연장 운영 할 계획까지 잡아놨다"면서 "보다 많은 골퍼들이 저렴한 혜택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아니다. 3번홀은 오르막 과4홀로 400m가 넘어 '2온'이 어렵다. 어프로지 샷을 할 때도 그린이 안 보여 접근에 애를 먹는다. 9번홀(파5)은 페어웨이와 그린이 해저드로 둘러싸여 있어 두 번째 샷은 아일랜드 페어웨이, 세 번째 샷은 아일랜드 그린을 향해 공략해야 한다.

웨일스 코스는 마지막 3개홀이 까다롭다. 7번홀(파4)은 티샷은 페어웨이에 뛰어뜨리기가 어렵다. 180m를 넘겨야 하는데 4명 중 2명은 계곡에 빠진다. 게다가 그린 앞에 전부 해저드다. 8번홀(파5)은 티샷이 오른쪽으로 가면 두 번째 샷이 어렵다. 그린 주변에 해저드 등 장애물이 많다. 9번홀(파4)은 IP 지점이 벙커 밭이다. 대부분 벙커에 빠진다.

-선불카드, 패키지 상품 등 다양한 할인 상품 인기  
금강센테리움CC는 퍼블릭 전환 기념 다양한 혜택의 할인 상품을 내놓았다.

먼저 오는 12월 9일부터 통계 할인에 들어가 이벤트는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그린피와 카트비를 합쳐 주중 7만 원, 주말 9만 원에 라운드 할 수 있다. 그린피 50% 할인이다.

다양한 혜택의 선불카드도 판매중이다. 할인 혜택이 부여된 500만 원, 1600만 원, 4000만 원짜리 선

## 퍼블릭 전환기념 고객 체험행사, 12월 말까지 실시

이벤트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 회원권 10억원, '최고 명문 코스로 운영' 된 골프장, 이제 일반 골퍼 라운드 가능

금강센테리움 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되었을 때는 회원권 값이 10억 원을 호가했다. 철저하게 운영된 회원제답게 코스, 시설, 관리 등 모든 것이 수준급이다.

이곳을 한번 다녀간 골퍼들은 전략적 코스와 항아리 벙커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하고 다시 찾게 된다. 최근 퍼블릭코스로 전환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일반골퍼들의 라운드 힘없이 즐길 수 있다. "어렵다", "도전적이다", "진짜 영국에 온 기분이다" 등의 다양한 라운드 후기와 입소문을 타고 금강센테리움 골프장은 지금 봄날이다.

### -항아리 벙커 도전, 탈출 기본 짜릿.

세계 100대 코스 설계가 로버트 헌트의 고집으로 살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 센테리움의 항아리 벙커이다. 정기적으로 헌트가 이곳 골프장을 방문해 자신의 설계로운 운영되는지를 직접 점검할 만큼 열정적이다. 코스 역시 캔터키를 뛰어난다.

어 고급스러우며 유법풍의 클럽하우스는 더더욱 스코틀랜드 분위기를 연출한다.

코스 곳곳에 즐비한 항아리 벙커는 골퍼의 실수를 유혹하는 반면 멋진 탈출을 경험케 한다. 하지만 실수는 골퍼의 발복을 잡기 일쑤이며 탈출은 짜릿함을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수직 벙커 벽이 공포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한다. 코스가 어려워 항아리 벙커의 턱을 낚주자 헌트가 코스 점검차 들렀다가 클럽하우스에 불이 있는 인증서를 떼어 가겠다고 해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3개 코스 중 임글랜드 코스가 가장 어려워

3개 코스 중 가장 어려운 곳은 단연코 임글랜드 코스다.

코스도 같고 항아리 벙커가 발톱을 드러내고 골퍼를 유혹하는 곳이다. 특히 3번홀(파4)은 티샷은 페어웨이로 보내기 어렵다. 오른쪽으로 헤어지는 날짜리지기이고, 왼쪽은 해저드이다. 6번홀(파5)은 100m 지점까지 그린이 보이지 않는다. 티샷이 미스나면 반드시 '4온' 작전으로 가야 한다.

스코틀랜드 코스는 임글랜드보다 페어웨이가 넓고 그린이 보여 그냥마 낫지만 결코 만만한 곳이

불카드도 팔고 있다. 이외에도 50만 원짜리 기프트 카드도 준비돼 있어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선불카드는 그린피 할인이 최대 50%, 최소 30% 까지 가능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알뜰선불카드로 인기가 높다. 이외에도 1박 2일 36홀 페키지 상품도 있으며 요일과 계절에 따라 저렴하고 다양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서울서 50분 거리, 가족 동반 리조트로도 각광  
금강센테리움골프장은 서울서 50분이면 도착이 가능하다. 특히 주말엔 서평역~충주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경부, 중부고속 도로를 피할 수 있어 접근성이 편리하다.

여기에 36홀 페키지 이용 시 캔팅턴리조트, 유엔호텔, 그랜드호텔 등과 연계 가능하며 5팀 이상 단체 팀에 대해서 28인승 고급 리무진 버스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동반시엔 인근 운천(양성, 수안보), 낙지 및 충주호 관광연계 상품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약문의 (043)842-8600, (02)2019-0108  
홈페이지 안내 www.centeriumcc.com



www.centeriumcc.com

인생을 살다보면 간혹 깊은 벙커에 빠지기도 한다

거칠고도 전적인

골프인생에 한번쯤은

브리티시골프를 만나라

웨일즈 6번홀

도전하라!  
1st British 센테리움

예약문의 043.849.7000  
02.2019.0108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솔고개로 750 서울에서 60분

센테리움컨트리클럽  
CENTERIUM C.C.